

書誌統整事業論 (二)

劉 永 玟

3. 書誌統整의 必要性

敍上에서, 우리는 書誌의 多樣的인 性格과 內容을 極히 素朴한 것으로서의 簡略한 一覽表的인 「리스트」로부터 複雜한 것으로서는 書誌의 四要素 即 著者事項·標題事項·出版事項·對照事項等은 勿論, 그 取扱된바 內容과 그의 解題 乃至는 評價, 아니면 그 資料가 形成됨에 이르기까지의 沿革 또는 頒布關係 等の 諸般事項에 亘한 高次的인 書誌에 對하여 概括的, 段階的으로 이들을 훑어 보아 왔는데, 이들이 도다 一定한 編成體系(例之컨대 가나다順, 알파벳順 또는 分類記號順 或은 其他 主題展開順)에 依하여 組成되는 것임은 勿論의 일이다. 그런데, 이처럼 複雜多岐한 書誌概念의 內容과 範圍를 그러면, 本稿에서는 어느程度로 局限시키어, 이제 부터 論究하려는 그 統整의 必要性을 더 나아가서는 그 統整事業의 內容을, 考察하여야 할 것인가?

이에 對하여는 本稿에서 趣旨로 하는바가 書誌統整一般에 對하여 普遍的으로 接近함을 試圖하면서도 可能的 限度的 包括性을 갖고 이를 取扱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前項에서 通觀한바는 勿論 이러니와 그들과 類似한 態樣의 書誌類型 및 이들과 關連된 事項 또한 廣汎하게 包容하면서, 本項을 展開하여 보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의 書誌統整은 어찌하여必

要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國家的 乃至는 國際的인 「스케일」로 擴延시켜서까지의 事業運動을 展開시킬 必要는 奈邊에 있는 것인가? 어떻게 生覺하면 이는 實質的인 要請에서 라기보다는 오히려 現代의 一般的인 趨勢에 따라서 流行的으로 形成 驅使되고 있는 觀念과 語句, 即 統一·統合 乃至는 「오오트 메이슨」의 第2次革命의 巨勢한 潮流에 漠然히 呼應하므로써, 既往에 觀念되어 왔던바 書誌의 自律性, 即 形式이나 客觀에 拘碍됨이 없는 自由로운 傳統的 自存性과 自體의 人文的 性格을 喪失한 이른바 機械論的 劃一性이라는 것으로 概言될 수 있는 一種의 時代性에 附和 便乘한 盲目的인 提唱일 것인가?

이에 對하여는 이미 序言에서도 若干言及한바 있었지만은 여기에서는 좀더 分析的인 接近을 通하여 體系의 必要性을 論考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大略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커다란 「카테고리」로 나놓아 考察할 수 있는 것이다. 即 「文化的인 要請」과 「技術的인 見地」 및 「經濟的인 立場」에서 여기의 書誌統整事業은 要請되는 것이다.

1) 干先 그 첫째의 「文化的인 要請」이라는 觀點에서 이를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利用者에게 所要될 新舊의 記錄된 知的 文化財를 各分野에 亘하여 大量으로 蒐集하여, 處理管掌할 뿐더러 나아가서는 이

들 情報資料를 그들 利用者들의 所用에 당도록 迅速且 正確히 그들에게 提供하기 爲하여 有力한 媒介作用을 營爲하는 通具의 役割을 하는 것이, 文獻센터라고 일컫러지는 機構一般이 整備하는바 書誌組織이며, 이를 通하여 이른바 圖書記錄類로 呼稱되는 文獻의 「써어비스」는 可能的 것이어서 그의 形態와 內容 및 編成方法 또한 複雜多岐하다 함은 既述한바인 同時에 또한 一般의 으로 認識되고 있는 바로, 이들은 흔히 書誌·書目·索引·抄錄等으로 일컫러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文獻 Service를 爲한 檢索 索으로서의 諸種書誌資料는, 어느 特定된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 資料는 勿論 必要에 따라서는 他館의 그것들을 또한 包含한 各種의 書誌資料를 備置하므로써 그 特定 圖書館內外의 資料一切를 廣汎하게 探索할 수 있도록 利用者를 資料源으로 媒介하는 것인데 如斯한 機能을 우리는 書誌「써어비스」라고도 또한 稱하는 것이다.

이러하여 이 書誌써어비스야말로 圖書館 專門職의 傳統的, 正統의인 業務와 機能으로 認識되어 오다시되,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것은 依然히 圖書館 專門職의 專門性, 技術性的 核心을 또한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筆者는 文獻과 書誌 乃至는 文獻書誌와 書誌文獻과의 關係性 乃至는 差異點을 分揀하여들 必要를 느끼는 바이지만, 文獻은 이를 應義로 解釋한다면, 純粹文獻과 書誌文獻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前者에 다는 純粹한 研究發表의 文獻 即 이른바 原著라 稱하여지는 情報資料를 包含시키는 것으로, 이는 別稱 第1次的(原來的) 文獻(Original Source)이

라고도 稱하고 있다. 이에 對하여 後者は 前者에서 본바 純粹한 文獻에 對한 情報를 可能的限 網羅的으로 悉皆把握하여 利用者들이 이를 依持하여 所要資料를 探索할 수 있도록 案内하는 tool의 作用을 하는 것으로서, 別稱 第2次的 文獻(Secondary Source)이라고 稱하여지는데, 이는 特別 科學·技術分野에서 보다 더 많이 發展되고 있는 바이며, 文獻書誌라고 말할 때는 다만 文獻에 對한 書誌라는 程度로 理解하여 큰 잘못이 없을 것이라 思料되는 바이다.

그런데, 이들 概念에 對한 鑿索은 如何 튼간에, 文獻書誌의 統整이 文化的으로 要請되는 理由는 다음의 諸點에 着眼하여 生覺할 수 있을 것이다. 即 그것은 크게는 人類歷史上 宏遠한 往昔으로부터 現在에 이르는 동안에 生産되고 所有되었던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將來할 未知의 未來에 亶하여 同様の 作用過程을 反覆하므로써 無限한 時間의 連續線上에서의 人類가 所有하게 될 各知識分野의 記錄되는 知的文化財의 發展 樣相과 그 生産量의 程度를 紹介 村度하게 하는 것인데 그 目的과 理由가 있는 것이라고 一言而蔽之할 수 있을 것이다. 換言하면 各其 時代와 場所에 따라서 生産되었고 또 所有하였던 以來로 散在하여진 人類의 知識情報의 資料들을, 어떠한 時空性을 特定하여 놓고 이에다 網羅的 集中的으로 全部 集結시킨다는 것은 絕對的으로 不可能한 것이며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들 資料에 對한 指針의인 媒介資料의 生産과 그의 流通뿐 일 것이어서, 이 程度만을 完全히 把握한다는 것조차 至難한 事業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事業만은 人間의

慧知와意思의流通과努力으로써 어느程度營爲될 수 있다는可能性을想定하고, 이를爲하여各己時空性에左右되어無秩序하게支離分散乃至는亂立되어 있는書誌體系를統一的,統合의으로調整하려는計劃이試圖되어 왔었는데 이努力이바로여기의書誌統整事業임은再言을要치 않는 것이며, 이는世界的인規模를갖고그自體의統整統合을志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最廣汎한書誌統整은그의範圍를世界的인視野와規模의것으로부더各己個別國家로單位를 좁혀서生覺할수 있을 문더러, 좀더 좁게는同一國家內에서의地方別,地域別乃至는어떤特定圖書館을中心으로하여그것과類似乃至는共通의인主題에다強調點을두는其他의數個圖書館間에서相互擔拂하여運營되므로써어느特定資料의所在와內容을案內하는役割과使命을다할수있으며, 더욱이는,各己圖書館의藏書構成比率과出版傾向및其比重또한우리로하여금어느程度斟酌케하여주는것이다. 특히出版狀況과傾向의忖度는著者와出版者들에對하여는企劃事業의必須의인豫備知識인것으로서, 이런點에서書誌의統整은그들의勞作과事業을爲하여大端한示唆와寄興을이룩하고있다는것으로周知化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書誌統整은教育者에對한教育資料의紹介와專門研究家들을爲한研究資料의生産狀況및所在,案內,그리고學究에精勵하는勉學徒들에對한學習資料를媒介하여주는補助指針의役割을하는것인데,就中研究와教授를專業으로삼는사람들에對한本事業의寄興란至

대한 것이어서, 秒刻을 다투어 變遷하여가는科學의發展과 이에 따르는 文獻의生産乃至는 그所在 및 그의 利用可能性, 더 나아가서는 海外 學界·技術研究界의 研究動向과 發展相의 探知를爲한情報를 提供하고 있다는點에서 이는 높이 評價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本書誌事業이 全國的, 國際的으로 統整되는 날에는, 이는 各自가 지니는 書誌文獻의 互相交換과 流通을 通하여 人類間의 知識과 思想 및 感情의 交涉을 可能케 하며, 文化的 國際的인 交流와 各國家와 民族間의 相互理解의 바탕이 되는 資料와 資料의 所在를 紹介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는 必要한 境遇에는 各自가 現在 保有하지 않는 情報資料의 不足을 그 自體의 統整된 書誌의 整備를 前提로 資料相互貸借協約을 通하여 有無相通하고 長短相補케 하는데 不可缺且 重要한 「무용」의 役割을 하게 되는 것일 문더러, 더욱이는 傳來的인 『아카데미』한 文化와 疎遠되었던 外國文化를 一般大衆社會에다 傳播普及시키는데 一役을 擔當하므로써, 文化的 障壁을 打破하는데 하나의 「모오리이브」를 이루게 된다는點을 또한 우리는 沒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如斯한 統整의 文化的要請中에서 빠트릴수 없는 또한가지 點은, 國際的인 特許關係에서 要求되는 專門研究主題에 必要한 情報의 速達이라는 것일 것이다. 即 科學技術의 研究調査者는 洪水처럼 生産되어 나오고 있는 資料中에서 自己가 所要로 하는 專門分野의 主題에 必要한 情報를 如何히 하면 迅速且 正確히 그리고 包括的으로 把握할 수 있을 것인가에 對하여 無限한 關心과 注意를 傾注하고

있는 것인데 그 理由에 對한 例를 特許의 問題에서 들어 보기로 한다. 卽 科學 技術의 業績이 發表되는 形式節次로서의 特許는 이 事務를 管掌하는 特許管理局이 發刊하는 特許公報에 依하여 公表되는 것이며, 科學者는 恒常 이러한 文獻內容을 把握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나, 實際에 있어서 이를 全部 把握하고 있다는 것이 不可能한 노릇이어서, 이가 가져오는 情報에의 疎遠한 탓으로 因하여 第1次大戰後 獨逸에서 和蘭特許局에 出願된 特許申請中의 65%는 特許의 拒否를 當하였고 31%는 그 申請事項中에서 制限附로 申請이 特許되었다고 하는 事實일것인데, 이에^①서 우리는 書誌文獻에의 等閑이 人間의 高貴한 時間과 精力을 그 얼마나 浪費시키며, 無意味한 犧牲을 反覆시키고 있는 것인가를 새삼 再認覺醒케 되는 바이며, 여기에서 또한 우리는 文獻의 迅速하고, 多樣且 廣汎한 入手와 이들의 正確한 處理 및 그들이 內包하는 情報內容의 迅速한 供與를 爲한 書誌組織, 나아가서는 雜多하게 亂脈을 이루고 散在하는, 따라서 그것은 入手하기조차 困難하며 無秩序, 無體系의인 그러한 文獻에 對한 書誌와 書誌文獻의 統整의 問題를 喫緊焦眉의 當面的인 重要課題로서 生覺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特히 情報資料의 生産과 所在의 迅速한 傳達를 爲한 方法으로서 外國에서 採擇되고 있는 方式을 暫時 몇個 들어 본다면, "Contents in advance"라던가, "Cataloging in Source" 또는 "Advanced Sheets of the Forthcoming materials under being processed in [a particular] library" 등의 速報手段等인데 如斯한 講究策은 우리에게 좋은 示唆을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 ① 국어국문학회편, 국어 새사전, 再版. 서울, 東亞出版社의 1958. P.278(Citation) 방식에 있어서 만뎡이는 "Univ" of Chicago Press의 A manual of style 를 따르지 않았음을 附記한다.)
- ②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3 London, 1958. p. 539
- ③ 植村長三郎. 書誌學辭典. 東京. 教育圖書, 1947. P. 253
- ④ Esdaile, Arundell. A Student's manual of bibliography. 3rded. New York Barn es & Noble, 1958. P. 23~33 椎名六郎. 圖書學概論. 東京, 學藝圖書, 1960. P. 15.
- ⑤ Shores, Louis. Basic Reference Sources, A. L. A., 1954. P. 12.
- ⑥ ibid. P. 190 ff.
- ⑦ ibid. P. 194. ff.
- ⑧ ibid. P. 12
- ⑨ Japan Library Association, ed. JLA Handbook. rve. ed. Tokyo, 1960. p. 23.
- ⑩ Ibid. 및 椎名六郎 op. cit., p. 72.

이 兩者로부터 좋은 "힌트"를 받은 바이며 여기의 純粹文獻과 書誌文獻이라는 對稱語句로써 明白히 表現한 것은 筆者의 試圖인 것이다. 그리고 第1次的 文獻과 第2次的 文獻에 對한 區別은 어디까지나 便宜의, 相對的인 概念으로서 觀點에 따라서는 第1次的 文獻中에도 第2次的인 文獻의 性格의 것이 없지 않을 것이며, 假令 古代 原典이나, 古文書에 關하여 取扱하여 研究發表된 結果는 第2次的 文獻이 될것이며, 이를 第2次的 文獻에만 典據하여 構成된 理論과 學說은 第3次的인 文獻이라 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對하여는 좀더 論究하여 들 必要가 있을 것이다.

- ⑪ 椎名六郎, Op. cit., p. 242.
- ⑫ 劉永玠. 科學文獻檢索機에 關하여 (서울大學新聞 No. 216, 1958年4月28日分載). (次號繼續)